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세상을 이기는 성도

성경: 요한복음 14장 23-31절

Tag:

2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4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25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28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29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30 이 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31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요14:23-31)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당장에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

15 내가 비유는 것을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요17:15)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천국에는 천국에 가야 하는데, 이 세상에서 사는 몇십년 동안 우리가 악에 빠지는 것은 피해야 한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수렁에 빠져서 마귀에게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복된 삶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천국을 이 세상과 비교해서 이분법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이 세상에서의 삶을 너무 부정적으로 이해하였다.

물론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들이 확실하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을 매우 경계한다.

16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요17:16)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시면서 고난을 당하셨나?

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명을 감당하시었나?

그것은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 위함이다. (15절)

마치 배가 바다에 빠지면 안 되듯이, 배는 교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세상은 죄악이 넘실대는 바다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죄악이 넘실대는 바다에서 성도로 살아갈 것인가?

① 주중에는 죄 속에서 살다가, 주일에는 교회와서 회개함으로 죄를 씻으면 되는가?

② 영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모두 사하시는 효력이 있으시니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된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필요 없다는 이단의 소리를 믿어야 하는가?)

③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으니,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마치 천사처럼 거룩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야 한다는 뜻인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해야 한다. 세상을 이겨 살라는 뜻이다. 죄악을 이겨 살라는 뜻이다. 마치 병균이 나에게 침투 하였을 지라도 내 몸이 건강하면 병을 이겨낸다. (병 걸린 사람은 모두 죄인이라는 의미 아니니 오해 말도록. 설명하자고 예를 드는 것이다.)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지었는데, 죄에 중독된다면 그 사람은 죄에 지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죄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만은 아름다운 로맨스이고, 하나님만은 나를 이해하실거야 라고 믿고 싶지만, 마귀까지 감동되면서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죄인지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속아서 죄를 짓게 망하게 되었는데, 웬지 서럽고 실망스러워 주님 곁을 떠나게 되었고, 자책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믿음까지 버리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결국 죄를 이기지 못한 것이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님께, 교인들에게, 심지어 기도를 들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실망한 나머지 서운한 마음으로 믿음의 도리를 게을리하던지 또는 포기한다면 그 사람 역시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아니다.

나의 나태함이나, 세상의 유혹에 빠지든지, 신앙생활이 힘들어서 점점 경건생활을 게을리하는 것도 세상을 이기는 성도라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라 하신다.

죄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성도도 역시 이런 저런 상처를 입고,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의 열매를 맺힌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17절 말씀이 답이다.

17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17:17)

우리가 진리로 거룩해지면 가능해 진다.

사실은 세상에 진리가 아니면서도 진리처럼 위장된 거짓말이 산더미 같다. 많은 성도가 이런 거짓말에 귀가 울려서 갈짓자 걸음을 하게 된다.

거짓말은 아무런 힘도 없지만, 그것을 믿을 때 인간의 논리회로가 엉뚱하게 설계된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로 인해서 도파민이 발생할 경우 전두엽에는 거짓말에 기초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 결국 진리는 듣기 싫어하고 거짓말에는 지속적으로 자극 받는다.

거짓말을 듣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된다면?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게 된다면? 비판의식이 강해지면서 막말이 쏟아지게 된다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나 충성심이 바람 빠지듯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을 믿고 도파민이 분비된 증거가 된다.

우리 귀에는 거짓말이 들려올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의 책임이다. 죄를 이기는 것은 오직 진리를 믿었을 때 뿐이다. 그런데 이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다. 거짓을 만들어내는 자가 마귀이고, 그것을 파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오늘 말씀에 집중해 보자.

2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귀찮은 일은 하지 않고, 이런 저런 핑계를 만드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

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아내가 남편에게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결혼은 계약일지 모르나, 사랑은 순종이고 귀 기울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셨고, 나의 죄를 씻으시고 저주를 끊어 버리셨으니 내가 마땅히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는가?

-그럼에도 거짓말, 핑계, 못된 버릇이 여전히 남아서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면 내 아버지께서 나를 더 사랑하실까? 아니면 거리를 두실까? (당연히 거리를 두신다.)

-내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더 기뻐할 것이고, 하나님은 아예 내 안에 거처를 만드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24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6절 말씀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삼고 거하신다는 말씀에 대한 설명이다.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뜻이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뜻이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가 더 이상 거짓에 속거나, 죄와 세상의 종이 되어 영혼이 불모로 잡히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는 뜻이다.

-오직 진리만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율법에 얽매이지 않게 하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한다.

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의 거짓말이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항상 신문은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비판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혀를 차게 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신문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그런 악한 것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뜻이다.

-항상 세상은 거짓말이 우선이다.

-세상을 향한 눈과 귀를 닫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세상을 이기라!

-경건의 습관이 너무 중요하다. 나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한다. 그러면 성령님은 여지없이 그날 필요한 진리의 말씀을 주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 말씀이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된다.

기도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소서.

오직 진리가 거짓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열쇠임을 믿습니다.

거짓이 우리를 유혹하고, 허망한 말이 우리를 흥분시킬지라도

오직 진리로 그 거짓을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말로만 하지 않고 순종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거룩한 습관 성경: 시편 4편

Tag:

1 내 의의 하나님이며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2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3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4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5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6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7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8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4:1-8)

-하나님께서서는 자기를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 3

-누가 경건한 자가 될 것이며, 그가 경건한 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는 자이다. 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2. 그는 매사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계임을 깨닫는 자이다.

3. 그는 하나님과 친밀하다. 거짓말이 통하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삶에서 거짓말이 사라진다.
4. 거짓말이 사라지면 편해진다. 불필요한 염려가 사라지고, 꼭 필요한 염려만 남게 된다. 그마저 사라지면 게을러진다.
5. 그는 최선을 다해서 계명을 지킨다. 십계명
6.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한다.
7. 삶이 곧 기도요, 하나님과의 대화다.
8. 특별한 기도제목을 정하고 틈 날때마다 기도한다.
9.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인지 살핀다. 자신의 욕심일 경우 대체로 성사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패했다고 여기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도 있다.
10. 인간의 실존 즉 나약함, 게으름, 사악함, 탐심, 정욕, 시기, 질투, 욕망, 욕심, 책임회피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주의하며, 경계하며, 겸손한다. 만약 범한 죄가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치루어야 할 댓가를 지불한다.